

담양군, ‘지역사회복지인대회’ 성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소통의 장 마련
1년의 활동 성과·우수사례 공유 ‘호응’



담양군은 지난 21일 담양리조트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지역사회복지인대회를 개최했다. 담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형식, 문영수)의 주

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복지활성화 유공분야에 담양읍협의체 하중삼 위원장, 봉산면 협의체 강정심 위원장, 창평면협의체 최영덕 위원장, 금성면협의체 윤준호 위원, 월산면협의체 이응우 위원, 대전면협의체 조희진 위원장이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이해 2019년 한 해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 회의운영, 홍보 등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의 실적을 인정받아 우수수상에 담양읍협의체, 우수상에 대전면협의체, 장려상에 창평면협의체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또한 ‘36.5℃ 사랑나눔가게’에 적극 참여한 창평면 불로혹읍소 임상진 대표와 담양읍 햇빛 편의점 정순자 대표, 용면 장미가든 김영숙 대표에

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대회에서 주제 강연을 펼친 엄미현 강사(광산구 우산동장)는 ‘내 삶을 디자인하는 시민들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지역협의체와 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존중과 연대를 강조한 광산구 우산동의 민관협력 활동 경험과 성공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는 강연을 펼쳐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형식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스스로 선택하며 책임지는 자치복지개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자치복지실현을 위해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마음으로 보는 세계가 더 커요”

한화, 내년 점자달력 4만부 제작

한화그룹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달력 4만부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점자달력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실었다. 전국의 맹학교에 시각장애인의 소망이 담긴 목소리를 들려 달라는 공모전을 진행해 100여명이 응모했다.

이중 12개의 희망 메시지를 선정해 각각 열두 달 달력에 글과 점자로 표현했다.

인천해광학교에서 이료재 활동가를 이수중인 윤민석 씨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더 큼니다”라는 메시지를 제출했고, 이 짧은 문장은 10월 달력에 게재됐다.

윤씨는 “현미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듯, 앞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읽는 세상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차별 없는 문화를 전파하고 시각장애인들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한화 점자달력’은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화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재까지 누적 발행 부수는 약 76만부다.

일반 달력에 점자 표현을 추가했기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달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달력은 한화그룹 사회공헌 사단 홈페이지와 한화 점자달력 사무국을 통해 사전 신청한 300여개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개인들에게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1

강진로타리클럽, 겨울 한파 대비 장애인가정 주거환경 봉사활동

회원 30명, 하수도관 정비·도배·장판

지난 24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 가정에 강진로타리클럽(회장 정양수) 회원 30명과 작천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이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작천면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이모씨 가정은 방치된 쓰레기가 방안과 마당에 쌓여 있으며 최근 화재로 방안 장판이 타고 벽지가 그을린 상태였다. 특히 마당 앞 하수도관이 파열돼 마당에 물이 고여 추운 날씨에 열거 될 경우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남성 회원들은 주택 외벽 페인트칠과 도배, 장판, 지붕 물받이 교체작업을 비롯해 포크레인을 동원해 마당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생활쓰레기와 대나무를 제거하고 파열된 하수도관을 수리했다. 여성 회원들은 가재도구와 집안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옷가지를 작천면사무소 주민복지팀과 함께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강진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정광일)이 동참해 신발장 설치 및 부서진 싱크대를 교체했고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따뜻한 겨울 이불을 전달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사랑



의 온기를 실천했다. 정양수 강진로타리클럽 회장은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대상자가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연 작천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자기 일처

럼 한걸음에 달려와 주는 강진로타리클럽 회원들께 감사하다. 강진군장애인복지관, 작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함께해주셔서 더욱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행복한 작천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아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아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